

**요절복통**  
**여래네 집**  
#23. 옥상 텃밭 이야기  
스튜디오들

#5. 불꽃놀이 편에서도 밝혔듯이 여래네 집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4층짜리 맨션의 맨 위층이랍니다.

보통 다세대 주택이나 전임주택을 빌린다고 하고 그 빌다가 몇개 합쳐 있는 것을 맨션. 또 그 맨션. 여러층 있는 것을 아파트라 부른다.

하지만 그런 백미리, 핸드폰 등과 같이 원뿔같은 거리가면 콜콜리수지.

그러다보니 바로 위가 옥상이라 엄마는 빨래 널기에 좋다 하시고 아빠는 담배 필 장소로 마춤이라고 하십니다.

아유, 정말 햇볕에 직접 말리니 뽕뽕뽕 하고 좋네.

엄마의 잔소리 안 듣고 담배 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공기도 좋고.

이건 편찮이잖아. 여기서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으면 집안에 고기냄새도 안 배고 아주 좋잖은걸.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험을 해봐.

찬성 찬성.

나도, 나도.

옥상에는 평상 말고도 여래네가 이사오기 전에 살고 계시던 노인네의가 가꾸던 스티로폼 상자로 된 작은 미니 텃밭이 있습니다.

수도까지 연결해 놓으시고 정말 장정하신단말!

이 큰 대바는 미니 텃밭으로 사용 하던 건가 본데.

그것을 물려 받은 엄마는 좋아라 이것저것 씨를 구해다가 부렸습니다.

텃밭가꾸기, 꼭 한번 해 보고 싶었어.

농사재미에도 가입하고

무척 좋아하는군. 그러다보면 내가 좀 더 크게 만들어 주봐.

아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스티로폼 상자를 더 구해다 놓고는 흙을 퍼다 날랐습니다.

어우 백색. 이거 장난이 아닌데.

남자, 칭찬에 약한 동물.

이제 여래네집은 옥상 상자텃밭을 때 놓고는 얘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건 또 뭐예요?

응, 포도나무야 친구한테 부탁해서 두 그루 얻어왔지.

또 칭찬 받고 싶은 구석이 역력하지요.

플라스틱 큰통 밑에 구멍을 뚫고 흙을 채운 다음 심어 놓았다.

아무리 옥상 작은 미니텃밭이라도 생각보다 일이 많답니다. 매일 물을 줘야하고 김도 매야 되고 벌레도 잡아야 하고,

**엄마, 처음**  
어머, 여기 잔디를 좀 반. 그리고 이면 또 무슨 벌레야. 징그럽네.

**얼마 후**  
그런데 이것들이 또 있네.

이쯤해서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로 할까요?

이거야 말로 우리 가족의 안전한 먹을거리야.

음식을 찌꺼기로 거름을 만드는 일도 너무 즐거워.

이렇게 하면 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 살고 돈 주고, 우리가족 건강도 챙기고 지구도 살리고 일거양득, 일도어피.

게다가 물만 주면 이렇게 자라니 돈도 때려도 아예 얼마야.

한마디로 여자들은 생태적인 삶 + 안전한 먹을거리 + 식단변화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텃밭 농사를 짓는 것이지요.

돈 안 들고 칼슘비료를 만들려면 우선 계란껍질을 잘게 빻은 후에 식초를 붓고...

발효 단계

망했다. 그냥 돈 주고 살걸...

반면에 남자들은 그냥 경작 그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이 땅냄새, 흙냄새 음, 오래만에 살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늘냄이 구르려기 기뻐하니 흙냄도 모른겠어.

좋다.

이랑 일을 했으니 당연히 댓가 있어야지.

쿵!

살질하고 막걸리, 흙 나르고도 막걸리, 씨 뿌리고도 막걸리, 김매고도 막걸리, 오로지 일 + 보상(막걸리)= 만족, 이런 패턴이죠.

이 정도면 나도 도시농부조성에 일조한 거 맞지? 막걸리 몇 잔 정도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한없는 과정, 회사동료들과의 술자리를 한번 볼까요?

이야, 내가 매일 아침 배드리지 않고 물을 줬더니 상추 한 장으로 밤 한 공기를 다 싸먹을 정도로 커져(더)라고.

이런, 그런데 다른 동료들도 지지를 안해요, 역시 대단한 족속들이죠?

저도 전에 주말농장 하는데 호박이 어찌나 크던지 차 트렁크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말도마. 나는 암석을 찌꺼기 가루를 내기전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트럭에 세게 실으니까 꺾어대라고.

사실 남자들의 경작 본능은 몸을 움직여 먹을거리를 만든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사냥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남성미 이게 중요한 건데, 잃어버린 남성의 본능을 일깨운다고나 할까요?

**다이아**  
아빠, 초이고.

맞어, 역시 당신이야. 존경.

암튼 이제 옥상 상자 텃밭은 여래네 아빠 엄마의 좋은 소일거리가 되었답니다.

여보, 일껏 자란 것을 왜 그렇게 막 뺏아내?

막 뺏기는요. 숨어주는 거라고요. 그러자 남은 것들이 저대론 잘지내죠.

그리고 숨은 것도 바가지 알고 다 무쳐먹고, 데려먹을 거예요.

그때도 아가뽀...

**이주일의 화두**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범구경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가다듬어서

보경 스님의 희로애락 세상보기

**이야기 숲을 거닐다**

동서고금의 이야기 숲에서 건져낸, 보경 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기쁨·분노·슬픔·즐거움의 지혜!

이야기는 반복에 묘미가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삶이 부족한 사람은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다면 깨우칠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영혼을 꿈꾸게 하는 마법과 같다. 상상의 안개가 가득 가득 피어아 정신이 건강해진다. 난 이야기가 좋다!

보경 스님 지음 | 도서출판 민족사  
국판 (140×210mm) 280쪽 | 본문 2도 | 값 12,000원